에세이

운명이 안겨준 두 가지 행운

책으로 쓰는 자서전 — 1

김병익 | 문학평론가

"나는 초등학교 1학년의 한 학기를 일본어로 교육받았고 2학기부터 한글과 우리말로 배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입학하고서의 첫 교육을 모국어로 공부할 수 있었던 '행운의 첫 한글 세대'였다. 책 읽기에 관련해서 내게 주어진 또 다른 행운은 내가 3남 2녀의 막내였다는 점이다. 6년 위의 작은형과 4년 위의 누이의 책들을 일찍부터 접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요행이었다."

55년 전 이맘 때의 한여름 어느 날 아침,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낯선 깃발을 흔들며 만세를 부르고 환호하며 행진하는 모습을 어리둥절한 눈으로 바라봐야 했다.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고 중학교 1학년인 형이 자신만만하게 태평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영귀축'에 '우리 일본'이 승리하리라고 장담하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인 나는 아무 영문도 모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해방이었고 우리 민족이 압제를 벗어나 독립한다는 것은 곧 알게 되기는 했지만 내게는 별 실감있는 일이 아니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책과의 인연

그 해방을 실감하게 된 것은 여름방학이 끝나고서 개학한 후였다. 우리는 "히꼬끼 히꼬기" 하던 일본어 교과서를 버리고 "가나다라"로 시작되는 한글 교과서를 받았고, 출석부에서 불리는 내 이름도 '가네하라 요시노부'(金原義信)에서 집에서 부르는 내 이름으로 바뀌었다. 나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의 한 학기를 일본어로 교육받았고 2학기부터 한글과 우리말로 배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입학하고서의 첫 교육을 모국어로 공부할 수 있었던 '행운의 첫 한글 세대'가 된 것이다.

한글 세대의 문화사적 의미는 훨씬 뒷날 성인이 되고서도 우리 문화의 정체성, 한국 역사의 주체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아가면서 깨닫게 된 것이고 작고한 비평가 김 현이 모국어 세대의 역사성을 강조하면서 더불어 자부하게 된 것이지만, 일어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민족문화적 혈통을 내 또래부터 내놓을 수 있게 된 것은 나로서는 여간 자랑스러운 행운이 아니었다. 우리는 가장 이른 나이에 우리말로 글을 읽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첫 세대였으며 민주주의적 사유와 절차를 가장 어린 시절부터 익힐 수 있었던 최초의 세대였다. 16년 후 내가 대학 4학년 때 일어난 4·19의 잠재력은 성장기의 이런 문화적, 교육적 자산으로부터 쌓여졌을 것이다.

책읽기에 관련해서 내게 주어진 또 다른 개인적 행운은 내가 3남 2녀의 막내였다는 점이다. 의무는 없이 혜택만 누릴 수 있는 막내의 특권에 대해서 나는 자주 생각해온 편이지만 특히 6년 위의 작은형과 4년 위의 누이의 책들을 일찍부터 접할 수 있었다는 점이 그 특권에 겹쳐진 큰 요행이었다. 내가 사거나 구할 필요도 없이 책은, 그것도 내 수준 이상의 상급생 책들이 내 주변에 널려져 있었다. 어느 결에 익히게 돼 글을 볼 수 있게 되면서 형과 누이의 국어며 사회 교과서, 그들이 산 책, 빌려온 책들을 학년 차이며 소설이나 교양서며를 가림없이 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막내이기에 얻을 수 있었던 커다란 행운이었다. 손위 사람들의 책들이기에 읽어서 이해되고 재미있으면 계속 보지만 어렵거나 재미 없으면 던져버리면 그만이었다. 어린 나이여서 보다가 따분해 중도에 그만둔 책으로 이태준의 《문장강화》며 《복덕방》, 김 구의 《백범일지》 같은 것들이 기억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지금의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즐기는 정도의 수준으로 나의 책읽기를 자유로이 즐겼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30분은 걸어야 할 보문산 자락에 있었지만 우리집은 당시의 인구 5만인 작은 도시였던 대전의 도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남들처럼 논밭을 뛰어다니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아이들의 동네 놀이를 할 기회는 별로 없었다. 학교에서는 여느 아이들처럼 장난꾸러기였지만 집에만 오면 나는 형이나 누이들과 어울렸고 그들의 책을 뒤적거리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책 이외의 것으로는 큼직하지만 성능은 부실하고 재미도 없는 라디오 한대뿐이었다. 아마 지금처럼 텔레비전이며 컴퓨터가 있었다면 나는 당연히 책이란 문자들보다는 영상매체에 매였을 것이고, 팝송과 쇼에 익어 글쓰기 대신, 재주가 있다면, 대중문화와 게임에 발을 들여놓았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책은 소년 시절의 내가 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문화적 접촉 대상이었고 그것을 보는 일이 놀이였고 시간 보내기였으며 그래서 그냥 그저 일상이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어릴 적, 달리 할 일이 없어 젖어든 그 일상이 훗날 내 직업이 됐고 소임이 됐으며 생계가 되고 해야 할 작업이자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돼버렸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후부터 나는 문

화부 기자로서 책의 소개자가 됐고 내 자신의 글을 쓰는 저자와 필자가 됐으며 더러는 번역자이기도 했고, 직접 교정을 보고 윤문을 하는 편집자에 발행인까지 겸하게 됐으며 문학상이나 신춘문예 심사위원으로 남의 글과 작품을 판정하게도 된 나의 평생은 그렇게 자연스레 정해진 것이다. 책이 그어준 테두리 속에서, 그 바깥으로는 거의 나와보지 못한 채 책이 고리가 된 갖가지 일에 매어 한 생애를 보내야 했던 나의 이 운명을, 나는 지금 감사해 하고 있는가….

어린시절 만난 지식의 보고

해방을 맞으면서 많은 우리말 책이 쏟아져 나왔을 것이다. 우선 한국어로 된 교과서며 교양서와 잡지들이 나쁜 종이에 급하게 만들어진 대로나마 왕성하게 간행됐을 것이며 식민지 시대에 처박아뒀던 우리말 책들이 중고서로 홍수처럼 범람했을 것이다. 더구나 그 시절은 38선으로 남북이 분단은 됐지만 사상적으로는 자유롭고 활달하던 때여서 내가 성장해서는 접할 수 없었던 책들을 마음대로 사고 팔고 읽었을 것이다. 내가 '했을 것이다' 고 쓰는 것은 출판협회의 통계에도 잡히지 않은 그 시절의 현상들을 후에 짐작했던 것이고 당시의 어린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덕을 어렸을 때의 내가 못 본 것은 아니었다. 그 첫 매듭은 《소학생》이란 어린이 잡지였다.

일러스트레이션 · 최정규

어느날 형이 학교에서 받은 것이라면서 우리말 잡지를 내게 보여줬다. 타블로이드판으로 첫면부터 이런저런 읽을거리가 많이 실려 있어 1학년짜리인 나를 당장 매혹시켰다. 그것이 《소학생》이었다. 처음에는 주간으로 나왔지만 한 해 후부터 4×6배판의 월간지로 바뀌었는데, '을유문화사' 란 이름을 이때 처음 알았고 해방된 해가 을유년이란 것도 이 때문에 기억하게 됐다(정진숙 회장을 처음 뵙고 이 잡지로 인사를 드릴 때의 감회란!). 이 잡지는 물론 바로 내것이 됐고 나는 매호 매호를 읽고 차곡차곡 모았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의 내 '독서' 경험이 이 잡지를 중심으로 쌓이기 시작했다. 가령 '도스토예프스키' 란 이름을 2학년의 이때 알았다. 타블로이트판 《소학생》은 첫면에 역사적 인물을 소개해왔는데, 어느 호의 제목이 '세계가 슬퍼한 도스토예프스키의 죽음' 비슷한 것이었다. 그런데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왜 슬퍼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 내내 그의 까다로운 이름과 함께 그 사연이 궁금스러웠던 것이다.

또 한번은 "쥐구녁에도 빛들 날…" 등 틀린 말 고치기 현상 문제가 나와 형의 도움을 받아가며 "쥐구멍에도 별들 날…"로 답을 써서 응모했는데 2등인가로 당첨돼 만화로 된 《로빈손 크루소》를 받았다. 한면의 반은 네 컷짜리 그림, 그리고 나머지 반은 글로 된 이야기여서 좀 딱딱했지만 이것이 내가 처음 대한 세계명작소설이 됐다. 20여년 후 다니엘 데포의 이 소설을 자유교양추진회의 청탁으로 번역하면서 내가 동화로 보았을 때와 달리 이 작품이 얼마나 크고 깊은 어른들의 소설인가를 깨닫게 됐는데, 이 대조는 성인소설을 축약 번안한 어린이용 도서는 그 원작을 다시 읽지 않고도 다 읽은 것 같은 착각을 줌으로써 차라리 안 읽느니보다는 못하다는 결론을 안겨줬다. 어떻든 이 잡지는 동화며 역사며 지리며 과학 등 갖가지 많은 것을 내게 가르쳐줬는데 학교 소개를 통해 덕적도란 섬을 알게 된 것도, "세계적인 의학자 이제마 선생의 사상의학" 이란 설명에 긴가민가 의아해한 것도 이 《소학생》을 통해서였다.

4학년 때였던가, 《소학생》을 사러 책방에 갔다가 《소년》이란 잡지를 발견했다. 국판으로 기억되는 이 잡지는 《소학생》보다 좀 고학년이 읽기 맞춤한 것이었고 소년소설이 많이 실렸다. 과월호 몇호는 넘어간 채 이 잡지도 사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한달에 두권의 잡지를 보며 내 책상에 용돈만 있으면 사던 《알라딘의 등불》이며 《사랑의 선물》 같은 동화책과 더불어 나란히 꽂아뒀다. 6학년 때 6·25가 터지고 우리 가족은 모두 부산으로 피난갔다가 10월 하순 대전으로 돌아왔는데 도심지의 다른 건물들과 함께 우리 2층집도 아주 타버려 폐허가 됐다. 그 자리를 처음 찾던 때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나뭇가지로 잿더미 속을 쑤석거려봤지만 책 탄 흔적밖에는, 건져낼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전쟁보다도, 집이 타버린 것보다도 5년 동안 모아온 이 잡지들이 없어져버린 것이 가장 안타까웠다.●